

안덕지역 관광자원 연계 발전방안

김 한 옥

I. 머리말

1. 세계의 관광환경 변화

- 세계 관광기구(WTO)에 따르면 21세기에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며, 기존의 단순한 여행 형태에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관광형태로 문화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크루즈관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선진국, 후진국의 구분 없이 문화를 수출하기 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문화상품화가 증진될 것이며, 인터넷이 발달로 인한 지역간, 문화간 격차가 좁아져 관광홍보 및 예약시스템의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고 새로운 관광업종이 발생할 것임.

2. 동아시아의 관광환경 변화

- 국제정치의 중심축이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다극화되면서 대립 양상이 해소되고 국가간 관광객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 교류 저해요인의 감소로 인하여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의 입·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13억 인구에 6천만명 시장의 해외여행 잠재수요가 있고 2000년 6월 27일부터 중국인 한국방문이 자유화됨으로서 중국 관광시장 개척여건이 마련됨.

3. 국내 관광환경 변화

- 사회적 환경이 노동중심적 가치관에서 여가지향적 혹은 노동·여가 동시 중시형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고, 또한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의 대규모 소비지향에서 실리형 소비지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음에 따라 관광도 단체 중심의 관광에서 개인의 취미관광을 거쳐 이제는 가족·친지 중심의 관광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음.
- 관광도 보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는 체험관광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유형인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12. 제주도

-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 직장휴가 분산제도 실시 등으로 국민관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또한, 금강산 관광이 유람선에서 열차관광으로 또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남북 관계의 진전은 당분간 제주관광에 상대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함.

II. 제주관광의 전망

1. 제주관광의 흐름

- 제주관광산업은 풍부한 자연자원, 아름다운 경관, 온화한 기후, 독특한 문화유산 등의 관광자원과 관광진흥정책에 의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 1980년 67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990년 300만명, 1996년에 400만명을 넘어 섰고, '97년에 436만명에 이르렀으나 관광객 증가율에 있어서는 70년대 15%, 80년대 14%, 90년대 7%로 그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최근에는 회복하는 추세에 있음.
- 심지어는 '98년에는 IMF로 인하여 '97년보다 107만명이 줄어든 329만명으로 24.6%가 감소하는 등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음.

2. 관광객 유치전망

- 우리도는 청정한 지역환경, 독특한 섬문화 등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지닌 곳이지만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고 있음.
-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지에 대한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전략 추진과 더불어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제2회 세계 섬문화축제 개최, 2003년에 IULA총회 개최유치, 2004년에 PATA 총회 개최유치, 11건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의 대형 축제·스포츠대회와 병행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은 '99년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매년 내국인 8% 내외, 외국인 1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됨.
- 2000. 6월말 현재 관광객 200만명 방문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내국인 15% 증가, 외국인 20% 증가) 하였음.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단체, 수학여행 및 개별여행과 외국인 증가 추세이나 신혼여행은 감소하고 있음.

3. 관광단지·지구 개발 (외자유치)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지정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재원 조달 여력상실로 사업추진을 중단·포기하는 상황임.

14. 제5차법

- IMF 경제위기로 국내자본 투자가 위축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대규모 리조트 개발 등에 외국자본 투자협정·의향서가 제출되었지만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관광진흥법·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메리트요인으로 작용하던 내국인출입 카지노 도입이 정부방침에 따라 유보되면서 외국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하여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 실현을 위한 제도보완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관광단지·지구를 정비하고 새로운 개발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4. 제주관광의 문제

- 제주에 관광을 온 중국인들의 털어놓은 불만은
 - '공기, 자연환경이 좋은 것 빼곤 관광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무엇보다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
 - 중국인 관광객들은 서울 동대문 시장 같은 중저가 쇼핑 단지에 가보길 원하지만 제주도에 그런 곳이 없고

- 중국인이 좋아하는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도 찾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주민들의 외국어를 몰라 외국관광객들이 물어보면 피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 제주를 관광해 본 내국인들은

- 제주는 공기와 자연환경은 좋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판매하는 값이 서로 달라 바가지를 쓰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 관광코스도 단조로워 즐길 거리가 없고 1일~2일이면 관광이 끝난다.
- 호텔숙박비나 항공요금이 너무 비싸서 이것을 지불하다 보면 여행경비가 거의 소모된다.

□ 전문가가 보는 제주관광의 문제점은

- 관광객의 취향은 자연환경에 대한 감사형보다는 참여형, 활동형으로 바뀌어 가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위락시설 설치는 안되어 있고
- 제주도는 다른 경쟁 국제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비수기가 길며
- 또 제주관광의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과
- 국제 항공노선이 부족하고 국제해운항로가 전무하여 접근성의 제약이 심하다고 지적함.

Ⅲ. 우리지역의 관광자원

1. 자연자원

산방산(용머리)

안덕면 사계리에 자리잡고 있는 산방산은 높이 395m의 암산이며, 이 산의 서남쪽 중턱 깎아 세운 절벽에는 깊이 10여m, 너비 5m 가량의 굴이 있다.

이 산방산은 그 직경이 약 1,200m이며 마치 투구모양으로 풍화된 조면암주를 포개 세워놓은 듯한 절벽으로 절벽과 정상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산은 신생대 제4기초 火山灰와 火山砂를 뚫고 분출했는데, 분화구의 동서남면 외륜은 풍화작용에 의해 지금과 같은 주상절리의 장관을 이루고 있음.

이 산의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에서 바라보는 해안선의 경치는 영주십경의 하나로 불리우고 있음.

안덕계곡

안덕면 중학교에서 동쪽으로 2km지점의 감산리에 자리하고 있는 안덕계곡은 양안의 기암절벽과 희귀식물인 담팔수와 상사화 등이 자생하고 있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난대림의 원시림으로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월라봉

명승지인 안덕계곡을 끼고 있는 오름으로 북쪽에는 감산, 서쪽에는 화순, 남쪽으로는 난드르(대평) 등 행정구역상 3

개리의 경계에 걸쳐져 있으며, 동북향 및 남서향의 2개의 말굽형 화구를 갖고 있는 복합형 화산체이다. 오름 남동쪽에 두 갈래의 깊숙한 골짜기가 대평리 항구쪽으로 패어 있으며, 그 하나가 밑에서 해안단애로 이어지는 곳에 '박수' 라고 불리는 폭포가 있고, 그 옆에 망한이물이라는 샘이 콘크리트로 칸을 둘러 정결하게 보호되고 있음.

□ 해안도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한라산의 절경과 산방산, 용머리, 송악산, 형제섬, 화순항, 화순해수욕장, 월라봉, 시원스러운 바다 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음.

□ 설록차 茶園

안덕면 서광리에는 현대인의 에티켓 음료인 녹차의 원료인 차나무단지가 있다. 이 단지는 장원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지는 1984년부터 식재하여 지금은 총면적이 156,300평으로 연간 160,000kg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관광시설

□ 제주조각 공원

산방산을 앞으로 한 절경속에 자리잡은 제주조각공원은 자연과 예술이 만남,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을 내세운 종합예술센터이다. 한라산에서부터 해안절경에 이르기까지 자연 그대로 예술의 무대가 된 이 곳에는 160여점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밖에 연못, 전망대, 기념품 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어 감상을 마친 후 여운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문화관광자원

□ 덕수리 불미공예(무형문화제 제7호)

제주도는 예전에는 생활 필수품을 거의 자급자족해 왔는데 덕수리 불미공예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주도내 각 가정마다 쓰이던 무쇠솥과 쟁기, 보습 등 농기구의 대부분은 덕수리에서 생산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불미공예는 완성되어 왔음.

불미공예의 발달은 농경발달과정과 함께 손의 힘을 이용한 ‘뚝뚝불미’의 형태의 불미공예에서 ‘토불미’, 그리고 발의 힘을 이용한 ‘골불미(청탁불미)’의 형태로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에는 동력을 이용한 형태이다. 덕수리 불미공예는 제주사람들의 삶의 도구를 만드는 한 수단으로 이어져 온 기층문화의 하나임.

□ 방앗돌 굴리는 노래(무형문화제 제9호)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연자매의 ‘웃돌’과 ‘알돌’을 큰 바윗돌이 있는 들이나 산에서 만든 다음, 이를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 굴리어 오면서 부르는 민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라진 운반노동요의 일종인데 ‘솔깃소리’라고도 함. 연자매를 새로 설치하려면, 이튿날 석공을 빌어 제주도 특유의 다공질현무암으로 마을바깥에서 이를 마련

한 다음 동네에까지 운반해 오는데, 참으로 벅찬 일이다. 이를 굴리어 오는데는 마을의 계원 전원이 동원되는 게 보통이다. 이를 굴리어 내리면서 주민들은 '어기영차 어기영차'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부른다.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유달리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서 전해온다. 덕수리는 주민들의 단결력이 매우 강한 편인데, 열세 군데나 연자매가 지어졌던 그 유래도 이 마을에는 전해 내려온다. 이 노래는 1980년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음.

4. 주변관광자원

□ 송악산 관광지

송악산은 모슬포 알드르라고 하는 평야의 동남부 돌출부인데 마치 사계리 앞 바다를 끼안은 오른팔 끝의 주먹과 같은 형상을 한 우뚝한 고지대이다.

송악산의 화산체는 이중분화구로 유명하며, 이 곳 지형은 반도로 돼 있고 산기슭의 해수의 침식을 입어 대부분 무너지고 벗겨진 단애를 이루고 있음.

아기자기한 해안 단애의 경관과 산재한 구룡이 연출하는 분위기가 독특하며 구룡지에서 소를 방목하는 전원적 경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풍류에 젖게 하며 해안절벽, 분화구 그리고 푸르른 잔디밭이 이상적으로 이뤄내는 조화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게 함.

□ 일본 군사전적지

○ 송악산 일대 지하진지

송악산 연안의 해군진지는 송악산에서 화순포에 이르는 일대의 포구를 겨냥해 설치하였음. 송악산 주변 일대에는 해안쪽 15개, 송악산 알오름 방면에 5개의 땅굴을 지하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놓았음.

알오름 방면의 땅굴은 군사 물자를 실은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크고 넓게 파여져 있는데, 알오름 지하는 속빈 강정과 같이 굴들이 이어져 지하를 완전히 요새화하였음.

해안쪽의 동굴은 15개나 있어서 '일오동굴'이라 하였으며, 굴의 폭은 3~4m, 길이가 20여m나 되는데 이 동굴은 어뢰정을 숨기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동굴주변에는 어뢰정 접안시설 및 자폭용 보트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기도 하였음.

○ 알뜨르 비행장 및 탄약고

해운 항공대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던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이 중일전쟁을 수행하면서 대륙침략전진기지로서 1926년에 처음 계획되어 1930년대 중반까지 약 1년간 1차적으로 20만평을 건설하여 사용하다가 2차로 1945년까지 80만평으로 확장하여 가미가제호(神風號) 항공기 조종사들을 여기에서 훈련시켰음. 그리고 부근에 정비고와 막사로 사용했던 건물의 잔해들이 남아 있고, 현재 비행장 동북쪽과 대정고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는데 비행장의 동북쪽의

탄약고의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내부에는 2개의 탄약고와 2층으로 만들어진 복도가 있음.

○ 격납고

해군 항공대 비행장으로 설치된 알뜨르 비행장 인근에는 현재 20여개의 격납고가 해안을 행해 남아 있음. 이 중에 2~3개는 약간 함몰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이 격납고는 소위 '가미가제호'(神風號)로 불리는 자폭용 비행기들이 공습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것임.

○ 오오무라(大村) 병사(兵舍)

알뜨르 평야에 해군 항공대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모슬봉 앞 속칭 '절왓'에 일본군은 오오무라(大村) 병사를 대규모로 건설하여 항공대원 2,500여 명을 주둔케 하였음. 그 후 1945년 일본방위 총사령부는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가능 예상지역으로 제주도 방면을 수립하면서 제111사단 12,000 명을 제주에 파견하면서 병사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음. 이 병사는 해방으로 일본군이 철수한 뒤 일시 대정중학교 임시건물로 사용하다가 1946년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주둔하면서 군부대 막사로 이용됨.

지금도 이 곳에는 군부대가 들어서 있음.

○ 통신시설

상모1리 이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은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 해군항공대 및 서부지역 주둔 일본군들이 통신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통신시설을 설치한 곳임. 현재 전파 송수신을 위해 새웠던 기둥 6개중 5개가 남아 있고, 길가 양쪽에는 통신시설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입구 2개가 남아 있음.

해방이후 한 때 대한민국 국군의 탄약고에 쓰이기도 하여 '탄약고 터'로도 불리우는데, 최근까지는 송신탑에 '이교동' 글자를 써 넣어 이교동 간판 역할을 하기도 함.

□ 6.25전쟁 군사전적지

○ 육군 제1훈련소

모슬포에 精兵의 요람인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된 것은 1951년 3월 21일이었음. 초대 소장에 白仁燁 준장이 취임한 제1훈련소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이 본토수호의 최전방으로 진지를 구축했던 '大村兵舎'자리에 마련됐는데 모슬봉, 송악산, 단산 등 그 일대의 산야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장정들이 훈련을 받았음.

이 훈련소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설립될 때까지 수십만명의 정병을 길러냈음. 지금도 당시의 훈련소 정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해병 제6196 부대가 위치하고 있음.

○ 강병대 교회

육군 제1훈련소 2대 소장으로 취임한 장도영 장군은 훈련병들에게 정신적인 양식과 종교적 생활을 통하여 강인한 정신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1952년에 강병대 교회를

건립함. 이 곳은 신자들을 위한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우천시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음.

○ 추사 적거지

대정읍 안성리에서 추사 적거지는 조선조 현종 6년(1839)부터 14년까지 9년간 제주도 유배됐던 추사 김정희선생이 적거한 곳으로 추사선생은 처음에는 적소를 송계순 집에 두었다가 이 곳 강도순 집으로 적거하였다고 함. 이 추사 적거지에는 遺墟費, 격거초가(4동), 연자마, 돌하르방 등이 보전되어 있고 57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추사 탁본과 민구류 등이 전시되고 있음.

□ 신평리 도요지

도내에서 양질의 진흙이 생산되어 대정읍 신평리 주거지역 동쪽편 '종계샘이'.

지경에는 도요(陶窯)는 찾아볼 수는 없으나 적갈색의 항아리, 허벅, 병 등 일상 생활용 그릇 파편들이 출토되어 있고 조선시대의 백자, 청자 그릇 조각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17~19세기에 도요를 설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또 속칭 '웃보'와 '알보' 라고 불리우는 지경은 지금은 논밭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도요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구전에 의하면 항아리, 허벅, 단지, 병 등과 같은 일상생활용 질그릇을 생산했다고 하며 도요의 형태는 앞뒤로 길쭉하고 반원형태를 하고 있는 '노랑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이외에도 훼손이 심하거나 흔적만 찾아볼 수 있지만 대정읍 신평리 신평초등학교 옛터 서쪽 울타리

에 신물도리 도요지, 신평리 주택 밀집지역 서쪽 100m지점에는 속칭 ‘앞동산굴터’ 라고 불리우는 노랑굴 도요지 등이 다수 있음.

IV.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방안

우리 지역은 제주도의 서남부 지역에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자연, 문화, 역사유적이 풍부한 곳은 드뭄. 지금까지 이러한 관광자원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1. 체류형 관광지 개발

1) 체류형 관광시설 유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관광지구로 지정된 용머리 관광지는 남제주군과 사계리 지역주민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2003년까지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임.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체류형 시설을 갖추어 소득을 높이고 취업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함.

2) 민박형 펜션업시설

- 이번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관광숙박시설로서 소규모 콘도미니엄 형태의 펜션업 시설을 화순리·사계리·대평리등 해안변과 덕수·창천·서광 등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농·어민 스스로가 시설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어촌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또한 이와 연계된 농수산물 직판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이와 연계하여 몽고의 '겔' 같은 이동숙박 시설을 여름철 해수욕장 또는 주변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방안도 필요함.

3) 속칭 '곶자왈' 이용개발

- 삼림욕장·관광휴양목장, 자전거 트래킹 코스 개발
화순리 마을공동목장이 인근 관광지와 연결되어 있고 목장인근에 속칭 '곶자왈' 이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삼림욕장·관광휴양목장, 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체험형, 참여형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관광객이 참여하는 관광상품 개발

1) 소형 어선을 이용한 배낚시 체험관광

사계리 마을 앞 1.5km 해상에 마치 다정한 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다하여 명명되고 있는 형제섬은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관광객들에게 소형어선을 이용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1일 코스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뉴시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함.

2) 스킨 · 스쿠버다이빙 유어행위 체험

사계리 등 마을어장, 협동양식어장을 유어장으로 지정하여 스킨 · 스쿠버다이빙에게 入漁를 허용, 遊魚행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수렵면허를 받고 사냥하는 형태의 관광), 또한 모터보트 경주, 형제도-마라도-가파도를 연결하는 제트스키를 이용한 체험관광을 유도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시킴.

3) 해안도로 乘馬, 馬車 탑승 체험관광

화순리 해수욕장, 대평 해안도로변 그리고 사계리 해안도로에서 상모리 송악산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여 주위 경관을 보면서 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승마도 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

4) 체험형 해양레크레이션 개발

화순리 해수욕장이나 사계리 해안도로 윈드서핑, 패러세일링 등 체험형 해양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

5) 산악암벽 등반체험

산방산은 모슬포에 미육군 휴양소 주둔시 미군들이 암벽혼

련을 많이 하던 곳이므로 이러한 산방산을 개발해서 암벽 등반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확충

3. 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1) 설록차단지 체험→도요지 체험→덕수리 문화유적지 체험
관광연계코스 개발

서광리 설록차단지 茶道 체험

차는 1년에 4회에 걸쳐 수확하므로 녹차 제조과정을 견학하고 전통 차례(茶禮)교육장을 개설하여 茶道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대정읍 신평리 질그릇 생산체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요지의 원형을 복구하여 관광객들이 질그릇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는 생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녹차→도요지)화하며, 녹차 그릇의 생산판매와 연계된 관광상품화 개발이 필요

덕수리 마을 민속공연 상설화, 관광코스화

매년 10월중에 불미공예 재현 공개행사를 덕수리에서 연중 실시하고 관광객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화. 덕수리 조각공원내 덕수리 마을 민속보존관 및 재현장을 설치하여 불미공예 노래와 방앗돌 굴리는 노래 공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초에는 행정에서 지원해 나가고 자생능력이 갖춰졌을 때 민간중심으로 이양

2) 복합 관광상품 개발

- 도요지에서 관광객이 직접 도기를 제작하고 이를 설록차 단지에서 다도체험시 활용하며, 덕수리에서 문화상품을 체험하고 제주조각공원을 관람하는 상품등을 개발

4. 전적지 활용 관광상품 개발

- 일본군 전적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일본인 관광객이나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송악산 일대 지하진지, 알뜨르 비행장 및 탄약고, 격납고, 오오무라 병사 및 산방산, 용머리 해안, 제주조각공원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하는 복합 전적문화상품을 개발
- 6.25전쟁 군사적전지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육군 제1훈련소 및 강병대 교회 등 6.25전쟁 전적지를 활용, '안보와 평화'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개발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하여 육군훈련소 출신인사들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

V. 맺 음 말

-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용머리 관광지 개발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됨. 용머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3년까지,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5년까지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될 것임.

- 이와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도 불편이 없도록 수용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우리지역을 방문했던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친절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국어 교육, 체험형 관광시설 정비, 음식의 개발,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등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밝게 전망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속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